

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한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-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,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.
- 이에,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·기아를 포함하여 BMW, 벤츠, KG모빌리티, 르노, 볼보,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,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(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)를 공개하고 있으며,
 - 포르쉐, 스텔란티스,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.
 - * 테슬라, GM, 폭스바겐(아우디 포함) 등은 본사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 결정 예정
 -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(www.car.go.kr)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
< 국내 전기차 주요 제작사별 등록대수 현황(24.6) >

구분	현대차	기아	BMW 코리아	벤츠 코리아	KG 모빌리티	포르쉐 코리아
등록대수(대)	241,691	166,274	19,868	18,775	6,002	4,642
등록비율(%)	39.8	27.4	3.3	3.1	1.0	0.8

* 국내 전기차 운행·판매 중인 주요 제작사는 14개사로 국내 5개사, 수입사 9개사

□ 또한,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·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부터 실시하며, 볼보는 8.19일부터, 테슬라, BMW, 르노,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, 폭스바겐(아우디 포함)은 연중 상시 무상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.

○ GM, 포르쉐, 폴스타, 스텔란티스,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되, 구체적인 일정*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.

* 제작사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보도자료 추가 배포 예정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,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서혜린 (044-201-3846)

